

메주고리에



Medjugorje

JUNE, 2006 제33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알려주는 메시지들을 삶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오늘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성화의 결심을 하고 천국을 생각할 때, 그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는 평화가 너희 마음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평화이란다. 어린 아이들아, 너희 마음과 세상 속에서 평화가 승리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고 추구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2006년 5월 25일 메시지

예수 성심 성월에 드리는 봉헌 기도

오 예수여, 당신께서는 부드러우셨으며,
저희를 위해 당신의 성심을 봉헌하신 것을 알고 있나이다.
그 성심은 가시관과 저희들의 죄로 죄여져 있나이다.
오늘도 또한 당신께서는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심을 아나이다.
예수여, 저희가 죄에 떨어질 때 저희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성심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증오를 삭혀 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소서!
저희 모두는 당신을 사랑하고 모든 죄로부터
당신의 목자의 성심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소서.

예수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소서.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이여.
저희들은 당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여전히 마음이 닫혀있나이다.
오 선하신 예수여,
저희를 위해 감수하신 당신 수난을 기억하는 순간만이라도
당신께 저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 성모님의 특별하신 지향을 위하여 ...
- 비신자인 남편 이근식의 신앙을 위하여 ...
- 성모님, 캐티 베로니카를 돌보아 주세요
- 김 에디타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
- 면역성 질환 6년째입니다. 돌봐주세요
- 성요셉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교황님과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어머니 마을 모든 봉사자들을 보살펴 주세요.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들과 가정을 봉헌합니다.
- 예수 성심과 성모의 성심의 축복을 온 인류에 내리소서.
- 암과 싸우고 있는 혜정이와 재열이 엄마에게 힘을 주세요
- 성모님, 저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 불법 체류자 가족들의 고통을 위하여 자비를 청합니다
- 이혼 직전에 있는 저의 딸과 어린 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이라크에 있는 아들의 안전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주님과 성모님이 보시기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세요
- 주님, 언제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시어 분심을 이기게 하소서
- 간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딸의 완쾌를 간절히 빕니다
- 우울증에 걸려 직장도 못나가고 있는 저의 딸의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 성모님, 김경련루시아가 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세요.
- 유소피아, 유마이클을 예수님의 성심과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합니다.
- 친정아버지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 새로이 미국생활을 시작하는 자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 새롭게 태어난 생명과 앞으로 태어날 생명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소서
- 생계가 막연했던 저희 가정에 다 같이 살 수 있는 꿈의 사업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5월 3일에 탄생한 새로운 생명이 주님과 성모님의 은총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 저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제가 성모님께 완전한 봉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언니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세요.
- 선우시몬, 이키파리나, 선우올리안나, 제프브라운, 선우요셉피나, 선우실비아, 안젤라브니를위하여
- 6월 3일 새 가정을 이루는 딸 서정현(클라리자)과 사위 김주한(잔)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 황정숙 아네스 가정, 박광림안젤라 가정, 신남연마태오 가정, 신준열가정이 화목한 성가정이 되기를
- 예수님! 안젤라의 건강과 내적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 성모님! 저의 암 수술과 쾌유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바칩니다.
- 성모님! 수사님께 영육간 건강을 주시어, 모든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 성모님! 서희석 형제가 당신께 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5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 미사를 봉헌하였고, 요조 신부님께서도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성모님을 엄마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이종하 스테파노 신부
 미주 가톨릭신문사 사장 /
 파티마 세계 사도직(푸른군대) 지도신부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하느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 첫 번째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과 배려는 에덴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었다. (창세 2, 8) 에덴은 사랑 자체이신 삼위 하느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정원이었고, 하느님의 원의(뜻)가 이루어지는 낙원이었다.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불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지키기보다도, 자신의 뜻만을 쫓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길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1981년 메주고리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은 "나는 이 세상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성모 마리아는 한 평생 당신의 뜻을 조금도 구하지 않는 겸손한 분이기에 그분의 마음 안에는 이기심이라는 그림자조차 없다. 오직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갈망만이 온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성모님을 통하여, 자식을 향한 부모의 본능적인 모성애와 부성애로 드러내셨다. 당신의 온 생애를 철저히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 가신 성모님의 성심은, 하느님의 뜻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에덴이었다. 성모님께서서는 영혼이 창조될 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셨기에 한 평생 죄의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셨다. 그 영혼 안에는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가득하였기에 교회는 마리아의 마음을 '티 없으신 성심'으로 공경하고

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인류가 죄의 분별도 없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릴 때,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 안에 머무르시며 위로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 주시고 마리아의 성심을 우리의 피난처로 주셨던 것이다.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에서 세 번째 발현하신 성모님께서서는 세 어린이에게 지옥의 환시를 보여주시고 난 뒤,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파티마의 발현증인인 루시아 수녀는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성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교황에게 전 세계 모든 주교들과의 일치 안에서 러시아를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원하신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전에도 비공개적으로 마리아 성심께 봉

헌한 적이 있는 교회는 그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에 파티마 발현 기념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암살 기도를 당하신 후 파티마 성모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신 것을 깨달으시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 후 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주교들과 모여서 전 세계와 소련을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봉헌하였으며, 봉헌한 지 6년 만에 철벽과 같았던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되었다. 세계의 모든

주교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던 그전의 봉헌들이 왜 주님의 뜻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루시아 수녀는 "성모님은 교회의 일치와 공개적인 봉헌을 강조하셨고, 그 이유는 이 은총(러시아의 회개, 공산주의 몰락)이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봉헌한 결과라는 사실을 온 교회가 알게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티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에 봉헌하는 것은 이처럼 위력적이다.

지금의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기 주장이 더 강하다. 전통과 권위가 설 자리가 없으며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싫으면 거침없이 내친다. 객관적 진리가 현대인의 사고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하느님의 계명은 안중에도 없고 죄에 대한 분별이나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어리석게 여길 정도로 죄가 만연하고 있다.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메주고리예를 찾아 온 한 순례자가 발현 목격자인 비스카에게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지 성모님께 여쭙어 보아 달라"고 했다. 성모님께서는 "지옥은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 순간에 지옥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결과이다. 사람들은 하루 빨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마귀는 현 세상을 물질만능주의와 순간적인 쾌락, 이기심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장악하고 있기에 현대인들은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만족이 없고 늘 허무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멈추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하느님과의 화해이고 진정으로 회개한 이들의 변화된 삶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왜 성모님을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셨는가? (요한 19, 25-27)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어 드리고 글과 말을 가르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원죄 없이 성령의 힘으로 태어나셨음을 가르치셨을 것이다.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기르실 줄 아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길러 주시도록, 성모님께 부탁하신 것이다. 마

리아의 티 없는 성심의 봉헌은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가 어머니인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우리를 맡긴다면,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길러 주실 것이다. 하느님의 뜻으로 가득 찬, 당신의 티 없으신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신다.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려는 악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신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거절하지 않고 실천 하려는 의의를 가지게 만드시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은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주형'이라 표현하셨다. 마리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리스도처럼 형성된다는 뜻이다. 성모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당신의 티없으신 성심'에 봉헌하기를 바라시고, 당신의 성심을 피난처로 삼기를 바라신다. 파티마의 메시지, 레지오 마리에,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스테파노 곱비 신부) 주신 메시지, 그리고 25년 동안이나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셔서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다윗의 조약돌(1사무 17, 40)과 같은 다섯 가지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가르치심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M**



그대들의 마음은 살아있는 감실

1994년 9월 1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이, 나의 지극히 사랑스런 자녀들인 그대들 위에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대들에게 하는 끊임없는 호소는, 나의 어머니와 모든 교회와 영혼들의 사랑을 통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확고히하기를 원하는 나의 간절한 간청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쇠신하기 위해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는 것과, 그대들 안에 계속해서 성령이 머무는 것, 그리고 구원의 참된 도구로서, 거룩한 목자들로 성장하도록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삼위 일체의 신비로 허락된 사랑과 은총의 선물이 되어서, 선한 의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들은 영원한 진리에 전적으로 봉헌한 존재가 되도록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나의 영에 의해 온전하게 채워지며 성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선택된, 사제직에 봉헌된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대들에게 위임된 영혼들과 함께, 밤낮으로 나를 찬미하라고 가르치는 끊임없는 사랑을 청합니다.

거룩한 성체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나를 향한 사



랑의 완전한 현존을 체험하게 합니다. 성체 안의 나를 찬양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스며들어가는 것이며 끊임없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삶의 초기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찬미의 커다란 은총은, 창조주의 지속적인 현존 안에서 창조물을 성숙시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게 보내는 그대들의 시간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의 성화를 위해 주어진 무한한 은총을 그대들의 삶에서 의미 없이 버려두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선택된 그대들은, 살아있는 나의 성전이며 나를 향한 사랑의 찬미가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맡긴 모든 신앙인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모범으로 성장하고, 내 마음의 신비를 깨닫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십시오. 하느님은 그대들이 거룩한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 항상 나와 보다 더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갈망하면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며, 더 이상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무한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나는 그대들 모두를 축복하고 내 성심 안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며 보살핍니다. 아멘.

1994년 12월 2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살아계신 하느님의 기쁨이 사랑하는 그대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그대들이 새로운 구세주를 만나는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입니다. 나는 그대들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리나라는 일치의 환영을 받음으로써 유일한 존재로 그대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믿음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그대들과 함께 하는 이유입니다. 늘 기도와 찬미로 나와 일치하십시오. 특히 성체의 은총은 그대들을 새로운 삶과 사랑의 성령이 함께 살아가는 나의 성심에서 필요한 은총을 얻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매년 그대들은 나의 성탄을 맞이하여 매 순간 사랑, 자애, 용서, 그리고 자비의 아기 예수를 맞이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기쁨의 축제를 준비합니다. 구유(요람)에 탄생하는 아기는 그대들의 구원과 모든 은혜를 선포하는 사랑과 용서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대들은 이 거룩한 시기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그를 찬미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들에게 위임된 영혼들이 항상 나를 찬미하며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대들이 먼저 생명의 물과 빵으로 영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체 안에서 살아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서는 그대들 사이에 함께 머무시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대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아름다운 시기에 특별히 그대들의 마음 안에 아기 예수님이 기쁘게 환영 받으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요람을 준비하십시오. 그들에게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선물들과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대들은 내가 하는 말들을 항상 신뢰하는 믿음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그대들의 하느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장된 여정을 믿고 성실하게 걷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빨리 다가올 것이고 그대들은 사랑의 요람인 성부의 가슴에서 아기 예수의 마음과 일치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 모두를 나의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며, 하나의 기도 안에서 그대들 모두가 일치하여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들의 눈동자는 밝혀진 등불이고, 마음은 살아있는 감실이 되어 그대들의 삶에서 유일하신 하느님께 대한 순수하고 믿음 있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대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M**



예수 성심이 허락하신 12 은총

1. 내 성심을 공경하는 자들의 지위에 요긴한 성총을 줄 것이요,
2. 저들의 가정에 평화를 줄 것이요,
3. 저들의 모든 근심 걱정 중에 나 저들을 위로 하여 줄 것이요,
4. 저들이 살아 있을 때나 특별히 죽을 때에나 저들의 의탁이 될 것이요,
5.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풍성히 강복할 것이요,
6. 죄인들은 내 성심의 무한한 인자의 샘과 바다를 얻을 것이며,
7. 냉담하여진 자는 열심하여 질 것이요,
8. 열심한 자는 빨리 큰 완덕에 나갈 것이며,
9. 내 성심 상분을 모시고 공경하는 가정에 강복하여 줄 것이요,
10. 신부들에게는 극히 완악한 마음이라도 감동시키는 은혜를 줄 것이며,
11. 내 성심 공경을 전파하는 자들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겨 도무지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 누구든지 아홉 달 동안 (9개월) 연속하여 첫 금요일 (첫 첨례6)에 영성체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통회의 은혜를 주고 필요한 성사를 다 받고 성총지위에 죽게 할 것이며 그 마지막에 나 저의 의탁이 되리라.



교회에 맡겨진 임무

86.10.27. 산토메로(떼라모).
'세계 평화 기원의 날'

오늘 너희는 모든 종교 대표자들과 모여 기도와 단식으로 일치하면서, 종일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준 길이거나,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로서 너희에게 올 수 있다. 단지 인간적 토론이나 상호 협정만으로 평화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그럴수록 평화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인류는 회개의 길, 마음을 바꾸는 길을 통해 하느님께 돌아와야 한다. 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 '사랑의 성령' 안에서 성부께 이르는 길을 너희에게 알려 주셨다. 누구든지 '진리'를 알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임무이다.

이것이 교회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오늘날 해야 할 일인즉, 예수 그리스도 홀로 너희의 '구세주'요 '구속자'라는 기쁜 소식을, 순교자들의 용기와 신앙 고백자들의 강인함을 가지고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다.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분을 만민에게 전함으로써 그분의 이 신적 명령이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내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르 16,15-16)

인간적 가치들을 수호하는 (범)세계적 종교 연합의 결성을 기대하면서, 모든 종교들을, 심지어 허구의 거짓 신을 예배하는 종교들까지도 포함해서, 한데 모으려는 시도는 헛되고 위험한 일일 뿐더러, 티없는 내 성심의 원의에도 걸맞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혼란의 증대와 종교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참된 평화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말한다: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만 충실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참 평화의 건설자들이 되리라. **M**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성체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대사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찬미와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은총과 치유의 성 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모 신심 미사 및 성시간

장소 및 문의 : 서울 옥수동 성당 (02-2297-2038)

신경남 신부님의 주례로 묵주 기도와 거룩한 미사, 성체 강복 및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캘거터의 마더 데레사



나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쓰는 그분의 몽당연필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갖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아무도 내 종교를 빼앗아 갈 수 없으며 아무도 내가 미사를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가 박해를 받더라도 그 길로 그리스도님이 오시려고 하신다면, 나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이며 절대로 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기에, 그리스도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이기에, 내게는 그분이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손에 들고 쓰시는 그분의 몽당연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온 마음과 몸으로 그분을 사랑하려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애정을 베푸시면서 나를 맞아 주셨기에 나는 평생을 통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할 것을 수락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들, 모두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나병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인간적인 정이 얼마나 따뜻한지 잊어버린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그들 모두를 대표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들을 돌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과 힘든 고통은 누구에게도 사랑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 받는 사람, 자신이 하찮은 존재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라고 깊이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자들이 이 세상에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나는 돈은 없지만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백만 루피를 준다 해도 나는 돈을 위해 나병환자를 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그들과 함께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리스도님의 슬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M**





성모님에게 봉헌된 토요일

윤종식 디모데오 신부
의정부 교구 / 로마유학 전례학 박사과정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사제

질문 : 토요일이 성모님의 날이라고 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텍사스 정유스티나 -

주간 요일들 중에서 토요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봉헌된 날입니다. 현행 로마 미사 경본에는 연중시기 토요일 오전에 행할 수 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경의를 드리는 미사 거행을 위한 여러 형태들이 있으며, 또한 시간전례에서도 토요일에 행하는 성모 마리아 찬가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는 것은 샤를 황제 시대(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심 역사의 애호가들이 알고자 하는 질문이나 토요일이 왜 성모님의 날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없지만 이 신심행위의 유래와 중세시대를 바탕으로 구성된 배경을 다음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콘스탄티노플의 어느 성당에 참으로 아름다운 성모 성화를 모셔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성화에 접근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그 성모 성화가 작은 천막으로 가려졌었다고 합니다.

둘째, 성모님은 예수님께 대한 굳은 신뢰와 믿음으로 성 금요일부터 파스카 아침까지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토요일은 하느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주일을 인도하는 전날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토요일이 별의 날인 금요일과 기쁨의 날인 주일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모님께서 고통으로부터 행복으로 가게 하는 중재자이시라는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첫 토요일에 창조주 하느님은 휴식을 취하시고, 또한 이날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유들 중에 어느 것이 더 합당한 유래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역사적으로 이러한 원천들을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몇 가지 의미 있는 가치들을 뚜렷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신성에서는 회답 서신인 "마리아 해의 거행을 위한 방향 제시와

제안들"의 (1987,4,3) 62항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보다 감성적인 묵상과 영성적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히신 성 토요일에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의 부활을 주의 깊게 기다리고, 희망과 신앙의 강한 면을 드러내고 지키신 동정녀 마리아의 모범적이며 모성적인 자세를 본받고자 하는 기억이다.

2. 주일 거행의 전조이며 도입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념인 주간 최초의 축제이다.

3. 성모 마리아는 확고하게 교회의 삶에 현존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주간에서의 상징이다.

또한 신심운동가들은 토요일을 성모의 날로 정한 것에 대하여 여러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 토요일에 각 공동체와 신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마리아께 봉헌된 이날을 기념하면서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신심행위들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요일에 성모 마리아를 위한 미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천주의 모친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께 경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모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모범적인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도 성모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M**

참고자료:

CONGREGAZIONE PER IL CULTO DIVINO E LA DISCIPLINA DEI SACRAMENTI, Directorio su Piera popolare e Liturgia, Libreria Editrice Vaticana, Citta del Vaticano 2002, 156-157.

이 페이지는 독자님들이 평화의 모후 선교회로 문의 하시는 질문들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을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다음 호에 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E-mail gregorynam@gmail.com

가깝고도 먼 땅에서 온 탈북자들

김기수 신부
 맨하튼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주임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사제

1월 27일 목요일

다음날 아침을 먹고 엘리사벳 자매님, 00이, Paul, 현수와 함께 00이의 지나온 과거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00는 현수가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보고 또 겁을 먹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우리들은 미국에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의 심부름으로 이곳에 와서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조건 없이 돕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설명하였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 보았느냐고 물으니, 기독교에 대하여 들어보았다고 했다. 그러면 천주교에 대하여 들어보았느냐고 물으니, 들어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하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1월 28일, 금요일

아침 일찍 로파에서 북한 아주머니 한 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일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다. 오늘은 구사장님이 한국으로 가시기 전에 심바로와 직원들이 함께 1년 결산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내일 가겠으니 잘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직원들과 지난 한해 동안의 농장 경영과 일년 동안 지은 농사의 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앞으로 우리들의 계획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화춘이와, 순금이, 시몬이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농장을 경영하여 믿음직스러웠다. 오후에는 심 바오로와 도미나와 함께 결산도 하고 새해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의논하였다.

1월 29일, 토요일

오늘은 로파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어서 아침 5시 30분에 미사를 봉헌하였다. 어제 저녁부터 감기 때문에 밤에 가슴이 몹시 아프고 기침이 나서 잠을 자지 못하였다. 오늘 다시 나가서 추운데 돌아다니면 감기가 더 심해질 것 같다. 가슴도 아프고, 지난주에 장백현에 가서 하루 종일

걸었던 것이 무리가 되었는지 오른 발이 너무 아파 걸을 수 없 걸을 정도가 되었다. 하루 더 미루기로 결정하고 로파로 전화를 걸어 하루만 더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고 하루 종일 쉬었다.

1월 30일, 일요일

아침 7시에 구사장님과 아네스 자매님께서 올라오셔서 함께 주일미사를 봉헌하였다. 미사 후 여자 옷 일체 한 벌과 의약품, 사탕 등을 챙겼다. 한국의 '헴프코리아'에서 남자, 여자 겨울바지, 양말, 속옷 등을 주어서 중국시장에 옷 사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지난번 공안원에게 검문을 당할 때 몹시 혼이 났던지 이제는 그만 따라다니겠다고 하는 현수를 억박질러서 데리고 농장으로 내려갔다. 아직 젊은 현수에게 우리민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싶어서였다. Paul은 어제 다른 일을 보러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화룡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탈북자 아주머니가 숨어있는 집으로 갔다. 가는 도중에 '혹시 이 아주머니가 북한에서 교육시켜서 탈북자로 위장하여 보낸 첩자가 아닐까? 혹은 화룡 공안원들이 나를 잡으려고 유인하는 함정은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하였다. **M**



메주고리에 주민들의 목주기도

(이 기도는 메주고리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예수님께 드려왔던 목주기도이다. 성모님께서서는 내적 음성을 듣는 엘리나에게 이 기도를 바칠 때는 무릎을 꿇고 하기를 원하셨다. 엘리나가 기도를 시작하자, 성모님께서서는 그녀의 기도를 중단시키시며 "너는 입으로만 기도하는구나. 마음을 비우고 내적 깊은 곳까지 내려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의 침묵을 지키고 눈은 예수님을 향하고 기도하여라.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의 모든 소망과 염려를 그분께 맡기어라" 고 가르쳐 주셨다.)

十 사도신경

첫 번째 신비 :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지향 :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유기도 : 예수여, 저희 모두를 위한 평화는 당신이시나이다. 서로가 서로를 분리시키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주소서.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시는 선한 지향과 뜻을 가질 수 있도록 하소서.

十 주의 기도 (5번)

"오, 예수여! 당신은 저희들의 힘이시며 보호이시나이다."

두 번째 신비 : 예수께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시고 모든 것을 주심을 묵상합니다.

지향 : 교황 성하와 모든 교회와 국가의 책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예수여!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주린 배를 지상의 빵으로 채워 주셨나이다. 이외에도 당신께서는 천상의

빵과 생명의 물을 모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주셨나이다. 교황 성하와 모든 국가의 책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그들로 하여금 지상의 재산을 올바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하소서.

十 주의 기도 (5번)

"오, 예수여! 당신은 저희들의 힘이시며 보호이시나이다."

세 번째 신비 :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부께 의탁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심을 묵상합니다.

지향 : 사제들, 특별히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께 봉사하도록 불려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예수여! 성부의 뜻에 온전히 의탁하신 당신처럼 모든 사제들과 축성된 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성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그들의 삶에서 있는 시련과 외로움의 쓴 잔이 부활을 향한 그들을 위한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十 주의 기도 (5번)

"오, 예수여! 당신은 저희들의 힘이시며 보호이시나이다."

네 번째 신비 :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삶을 내어놓으시고 침묵하셨음을 묵상합니다.

지향 :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예수여! 당신께서는 저희를 부르셨기에 평온한 마음으로 성부께 가시고 온전히 의탁하셨나이다. 저희를 향한 사랑에서 힘을 얻으시기에, 당신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존재치 않나이다. 저희들의 가정도 마음을 열어주시어, 서로가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모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삶이 사랑 안에서 거룩함을 지향하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 있도록 하소서.

十 주의 기도 (5번)

"오, 예수여! 당신은 저희들의 힘이시며 보호이시나이다."

다섯 번째 신비 :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사셨음을 묵상합니다.

지향 : 우리 각자가 자신들의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여, 저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으셨을 때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셨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처음부터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대신 종의 신분을 취하셨나이다. 당신처럼 행동하라고 저희를 부르고 계시는 당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며, 마지막에 가서는 당신처럼 살라는 뜻을 아나이다. 저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교만, 증오와 질투, 탐욕 등을 파괴하소서.

✦ 주의 기도 (5번)

"오, 예수여! 당신은 저희들의 힘이시며 보호이시나이다."

여섯 번째 신비 : 예수님의 승리, 당신의 부활로써 사탄을 쳐부셨나이다.

지향 : 예수님께서서 죄들을 소멸시키고 우리 안에 새로 나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여! 제 안에 있는 죄들과 죽음 앞에 승리하소서. 저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증오를 쳐부수어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소서. 당신의 말씀의 권능과 사제들의 말씀의 힘으로 모든 악마의 영향들로부터 보호하소서.

주의 기도 (5번)

"오, 예수여! 당신은 저희들의 힘이시며 보호이시나이다."

일곱 번째 신비 :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지향 :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 예수여! 기도와 기쁨의 영을 주시어 저희로 하여금 삶 속에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교회가 세상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게 하소서.

✦ 주의 기도 (3번)

"오, 예수여! 당신은 저희들의 힘이시며 보호이시나이다."



여덟 번째 신비 :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서 성령을 보내셨음을 묵상합니다.

지향 : 모든 가정과 교회, 수도 공동체, 각 나라의 지도자들, 모든 신앙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온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성령을 충만히 내리시어 그들이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예수여, 당신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저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당신의 현존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안에서 저희들을 드러내시며, 사랑을 가르치시고 평화를 향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 영광송 (7번)

"오, 예수여! 당신은 저희들의 힘이시며 보호이시나이다."





예수님, 평화의 모후와 함께 저는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신경남 신부 옮김

1) 예수님, 당신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기에
저는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평화의 근원이시니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저희의 평화이시니
저는 당신을 믿나이다!

2) 예수님, 오늘 평화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저희와
함께 하도록 당신께서 보내주신 평화의 모후와 함께 당
신을 흠송합니다. 그분께서 목격 증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나는 평화의 모후이
다. 내 아들이 너희를 돕도록 나를 보내셨다." 그분께서
는 저희 자신을 평화에로 열어놓도록 당신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저희를 초대해주시니 그분을 통하여 당신은
찬미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너희 모두를 하느님의 평화에로 초대하고자 한다.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마음으로 체험하기를 원한다.
나는 오늘 너희 모두를 축복해주고 싶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하
느님의 축복으로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가 나의 길을 따르며
살아달라고 너희에게 간절히 청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이
다. 나의 지향들을 이루기 위해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
하여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이 고마워하고 있는지 헤아릴 수
가 없구나. 애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너희를
구하며, 구원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1987년 6월 25일-발현 기념 6주년)

- 예수님, 저는 평화의 모후와 함께 당신을 흠송하고,
제 마음을 평화에로 열어 놓습니다.

(조용한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해서 바친다.)

3)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저는 평화의 모후와 함께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그분께서 십자가산의 큰 십자가에
나타나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을 찬미하나이다.

"평화, 평화, 평화! 오직 평화만이!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모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
기를! 단식하고 기도하여라. 단식과 기도를 통해 심지어 전쟁까
지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당신으로부터 만이 참 평화가 온다는 것을 저희
에게 보여주시고,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무
엇인가를 저희에게 명확히 밝혀주시기 위해, 저희에게
평화의 모후를 보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 조건은 기
도와 단식을 통한 회개와 화해입니다. 예수님, 이 격동의
시기에 평화의 모후께서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머니의 부르심에 마
음을 열고 기도와 단식, 고백성사와 미사 참례를 통해 평
화의 선물을 받은 모든 이들과 함께 당신께 감사와 찬미
를 드립니다.

- 예수님, 평화의 모후와 평화의 초대에 마음을 연 모
든 이들과 함께 저는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조용한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한다.)

4)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초대하시고 제 마음
에 평화를 가르쳐주시는 평화의 모후와 함께 당신을 흠
송하나이다. 그분께서는 저의 가정과 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평화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니
다. 그분께서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평화에로 부른다. 마음으로
평화를 열고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라. 그러면
모든 이들이 네가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오늘은 참으로 위대한 날이다. 나
와 함께 기뻐하여라! 내가 간직하고 있는 평화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라. 내가 너희의 엄마, 평화의 모후로서 이 세상
에 온 것은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이다. 모든 창조물에 평화를
가져다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
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1988년 12월 25일)

(당신 자신과 가정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과의 관계에
서 평화와 평온함이 있기를 기도한다.)

5) 예수님, 증오는 위험하다고, 분열과 불화를 일으키며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깨뜨린다고 제게 가르쳐주시는 평화의 모후와 함께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평화의 모후께서는 사탄은 매우 강하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저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증오는 불화를 불러 일으키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게 만든다. 나는 항상 너희를 조화와 평화로 부른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특별히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랑으로 활동하여라. 사랑이 너희의 유일한 도구가 되게 하여라. 사탄이 파괴시키고 차지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너희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나는 너희들을 도울 수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1986년 7월 31일)

나의 예수님, 저는 오늘 제 마음을 다해 마리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증오를 버리고, 제 안에 그리고 제 주위에 혼란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파괴시키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저는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행위를 끊어버립니다. 저는 사탄과 협력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당신의 자비와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저는 모든 유혹에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가정 안에서, 친구, 친지와 평화화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불화, 분열 그리고 악과 협력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평화를 위해 살아갈 결심을 한다.)

6) 예수님, 저의 기도와 희생, 사랑과 평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게 하시는 평화의 모후와 함께 당신을 흠송하고 감사 드리나이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제가 이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없는 가운데 살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파괴의 길을 걷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화목하지 못한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심을 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지요! 제가 악과 사탄의 속임수에 맞서 싸우고 계시는 마리아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가진 평화로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발견하고 그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나는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있기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기도와 삶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없애버리고 사탄이 사용하는 속임수를 폭로하도록 도와주려고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1986년 9월 25일)

- 예수님, 저는 당신과 마리아와 함께 이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주고, 사탄과 그의 계획을 폭로하며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해서 바친다.)

7) 예수님, 저는 평화의 모후이신 마리아, 그리고 그분의 초대를 받고 어머니께서 주시는 충고를 실천에 옮기고, 고백 성사에서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면서 그분의 메시지에 마음을 연 모든 이들과 함께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예수님, 당신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파괴적인 생활양식 안으로 들어오셔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니, 당신의 자비를 찬양하나이다. 마리아의 전구로,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평화의 길로 들어선 모든 이들 안에서 찬미를 받으소서. 예수님, 인내와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며, 큰 사랑으로 당신께서 주시는 평화와 용서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도록 만드는 사제들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지금 단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구원하시고 열어주실 것이니 찬미를 받으소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고백성사를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8)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제가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주신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뿌리신 하느님 평화의 씨앗은 밭같이, 되지 않은 제 마음의 땅에 뿌려졌고, 그럼으로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나라들이 서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당신 앞에서 전쟁의 죄, 그리고 모든 파괴와 살육에 대해 참회하고자 합니다. 제가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함으로써 평화를 건설하는데 일조하지 못했음을 뉘우치고자 합니다. 저희는 당신께서 이 시대에 저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목숨이 빼앗겼고,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폭력과 증오의 영이 복되신 평화의 성령보다 더욱 강하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 저는 평화의 모후이신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송하고, 저희가 저지른 전쟁과 인간 생명 파괴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도록 당신께 간청합니다!

(조용한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해서 바칩니다.)

9)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께서 평화의 모후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희망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그 길을 걸어갈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신의 은총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께서 저에게 회개하고 평화의 길과 법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에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에로 인도해줄 회개의 길에서 지치는 법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묵상하며 저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정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 4, 1-3)

예수님, 회개의 은총으로 저와 이 세상을 정화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 안에서 저의 가장 깊은 갈망이 성취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평화를 위협하는 무질서한 욕정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 교회로 하여금 평화와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저는 제 편에서 마음을 열고 당신의 성령께서 저를 차지하시고 구하시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내적 자유와 평화를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주님 혹은 주님의 어머니의 메시지 혹은 어머니 현존의 선물에 협력하지 않는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10) 축복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저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평화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모든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마침내는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공격과 분열을 치유하소서. 평화가 없는 가정 혹은 공동체에서 받은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소서. 교회 혹은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소서. 평화의 모후의 전구를 통하여 불안한 모든 마음들을 또한 치유하소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평화의 모후의 전구로 당신을 통하여 정의와 평화가 서로 만나 열싸 안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세상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M**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965-6168. Fax : (610) 965-6179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서울 옥수동 성당 주임)
지문위원장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집인 : 최성득
편집위원 : 장혜영, 양의현, 남지혜, 송시원,
: 남미자, 이규현
인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너희는 이 세상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을 전해주는 좋은 선교도구입니다. 교회를 떠나 냉담 중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또는 그분들의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 국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캐나다 : 이준용 콜베 (403-288-0469)
한 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허안젤라 (017-785-3535)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림을 묵상합시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김훈 율리아노 옮김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 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서 묵상 / 이사야 53 : 2 - 3

느림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 만한 볼품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며 피해 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묵상 기도:

예수님! 온갖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지만 주님의 얼굴은 충만한 은총으로 아름다운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악당들은 시몬이 주님을 도와 대신 했던 십자가를 다시 떠맡기며 십자가의 길을 강행하였을 때, 아름다웠던 주님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 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죄수로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여인 베로니카는 손수건으로 주님의 얼굴을 정성껏 씻어 드렸습니다. 베로니카의 용기 있는 사랑을 보신 주님은 그녀의 손수건에 당신의 형상을 남기시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녀 베로니카여! 당신은 주변사람들의 무시와 모욕을 초월하여 오로지 주님만 생각했기에 용감하게 주님의 얼굴을 씻어드렸습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주님의 얼굴을 정성껏 씻어 드린 당신의 용기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당신처럼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를 갖게 해 주소서.

예수님! 당신은 저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이웃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제 얼굴과 이웃의 얼굴을 더럽히며 거듭되는 죄로 결국 주님의 얼굴을 더럽혔습니다. 주님! 탐욕과 자만에 빠져 죄

의 유혹을 합리화 시키며 살아 온 이 죄인의 뉘우침을 받아주소서! 영적으로 더럽혀진 제 얼굴을 깨끗이 씻어 주어도 주님처럼 아름다운 빛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얼굴을 갖게 해 주소서.

예수님! 지금 이 세상에는 주님의 이름을 비웃으며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받아 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새로이 태어나 당신께 찬미와 영광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모욕하는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모든 정의의 용사들에게 능력과 은총을 주시어 축복 하소서.

성모님, 당신 아드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과 축복의 빛이 모든 순례자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주신 메시지에 감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지를 주어왔고, 이 메시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라고, 나는 오늘 너희를 부른다. 너희 생활 안에 내 메시지가 제대로 실천되어야 하고, 또 내 메시지가 이웃에 전파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특별히 너희 모두가 내 아들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빛을 발하게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너희가 어둠 속을 걷는 이 믿음 없는 세상을 비추길 바란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 안에서 너희를 증거하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어둠이 아닌 빛으로부터 불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으로 밝게 생활하여라.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 (1986. 6. 5)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 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M**

성모님은 나의 유일한 어머니

오스카 루이지 스칼파로 이탈리아 대통령의 마리아 신앙



에오스카 루이지 스칼파로 이탈리아 대통령은 성모님을 매우 공경하는 사람이며, 이탈리아 파티마의 세계 사도적 푸른 군대 전국 회장이다. "당신이 지닌 깊은 신앙은 누구의 영향을 받으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저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받아들이고, 심화하며 생활할 수 있는 가정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덕분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주 깊은 신앙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저녁이 되면 우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우리들이 하느님 앞에서 해야 될 신앙인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셨지만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 아주 깊은 종교적 정감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철야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두 자녀를 비용이 들지 않는 국립학교에 보내는 대신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는 것은 부모님에게 적지않은 희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아들은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할텐데요. 딸애는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으세요?" 아버지께서는 붓을 손에 드신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아이는 가톨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될 거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시네요. 사립 초등학교도 간신히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대꾸하셨습니다. "당신은 애들과 함께 성당에 다니지 않소! 하느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성당에 다니는 거요?" 그런데 그 후 나와 누이와 실제로 가톨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 성모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같이 대답한다. "성모님은 그저 한 어머니가 아니라 나의 '유일한 어머니'입니다." 그분의 삶 전체에서 저를 아주 감동시킨 것은 다음 두 마디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잉태 때 하신 '예'입니다. 두 번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하신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 중에 저를 더욱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카나에서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능을 어머니께 위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마리아는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에게 한 주인의 명령은 인간의 논리적 법칙에 따르면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술통을 물로 채워라!' 이때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당신께서 미술사라면 당신이 믿는 대로 하십시오. 이 통이 포도주로 가득 차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일을 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인간은 하느님의 전능을 기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에게서 겸손과 헌신의 행동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인상이 깊었던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의 모성적인 통찰입니다. 그때 마리아 이외에는 아무도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취해있는 축하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무엇인가 하신다면, 이는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어머니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마리아의 과제를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 있다. "성모님에게는 근본적인 과업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류에게 아들을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는 마리아의 과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자식을 놀라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위협적인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가 제때에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 위협적인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시고, 마리아는 어머니이십니다. 마리아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는 파티마의 메시지에 있는 이 놀라운 말에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의 티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M

마리아 80호에서 발췌 -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 25주년 특집

아일랜드의 가톨릭 주간신문 "The Irish Catholic"

지난 2006년 4월 초, 아일랜드 가톨릭 주간신문인 "The Irish Catholic"에서는 메주고리예에 대한 기사를 특집으로 연재하기 위해 본지 소속의 미셸 켈리 기사를 메주고리예로 파견하였다. 1888년에 창간된 이 신문은 매주 31,000 부가 발행되며 100,000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아일랜드 국내와 전 세계 가톨릭 동향을 전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신문이다. The Irish Catholic는 현대의 미디어가 종교에 반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긍정적인 내용과 희망으로 신자들을 이끌고 있는 신문이다. 영국 신자들, 특히 아일랜드 거주 영국인 순례자들과 함께 메주고리예를 방문한 미셸 켈리 기사는 메주고리예 본당의 모든 전례 일정에 참여했으며 이반 세사르 주임신부와 대담을 가졌다. 다음은 미셸 켈리 기사가 본 메주고리예에 대한 체험담이다.

"저는 이곳 메주고리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사인 성체성사와 미사, 성시간 등이 이곳의 핵심적인 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매일 저녁 무려 세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동 전례 일정을 전혀 지루한 줄 모르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대단한 열정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별히 본당 차원에서 메주고리예의 영성을 기본으로 하는 기도회들이 점

차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000여명의 아일랜드인들이 이곳 메주고리예를 순례하면서 기도의 결실과 체험을 지니고 돌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생활과 본당 생활까지도 쇠신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문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메주고리예에 대한 특집 연재 기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권하고자 합니다. 저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유럽의 신앙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현대의 유럽 국가들은 연합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지만 그 평화가 실제로 믿음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유럽은 평화를 얻지 못하고 공통분모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100여년 동안 유럽의 지도는 상당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의 굴곡을 겪었지만 유일하게 남아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모님께서 이곳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아일랜드 등 소위 말하는 전통 가톨릭 국가라고 자부해왔던 나라들이 지금은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있는 새로운 국가들은 성소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저는 그들을 통해 유럽과 유럽의 신앙이 쇠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M





정화의 시기에 대한 열 가지의 비밀

(발현목격자 미리야나의 증언 -3-)

미리야나는 6명의 발현 목격자중의 한 사람이며 1982년 12월 성탄절에 성모님으로부터 정화의 시기에 이 세상에 일어날 10 가지의 비밀을 받고 이제 매일 발현은 끝나게 되었다. 성모님께서서는 매년 그녀의 생일인 3월 18일에 오시겠다고 하셨으나, 그녀가 미래에 일어날 10가지 비밀을 알고 몹시 고통스러워하자, 현재까지 매달 2일에 발현하시어 위로와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 미리야나는 특별히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 편집자 주 -

질문 : 성모님의 이 위대한 발현이 메주고리에서 시작 된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복되신 성모님께서 세상의 미래에 관한 그 열 가지 비밀들을 당신에게 매우 급히 주신 것은 아닌가요?

미리야나 :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성모님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라예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되신 성모님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메주고리에 있던 다른 증인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다른 목격자들은 메주고리를 찾아오는 많은 신부님들과 순례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복되신 성모님께 여쭙어 보아야 하는 바쁜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요. 그러나 저는 사라예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과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성모님께서 비밀에 관해서 말해도 좋다고 허락하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리야나 : 첫 번째 비밀과 두 번째 비밀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는 징표에 앞서 나타나게 될 사건들로써 이 세상에 내리는 경고입니다. 이 사건들은 제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과 두 번째 비밀이 일어나기 각각 10일 전에 저는 페

타르 류브치치 신부님께 그 비밀에 대하여 알려 드릴 것입니다. 신부님은 그날로부터 7일 동안 기도하고 단식하신 후 이 사건이 일어나기 3일전에 이것을 온 세상에 발표하실 것입니다.

질문 : 당신은 비밀들이 일어날 정확한 날짜와 요일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 비밀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죠?

미리야나 : 저는 10가지 비밀들이 쓰여져 있는 양피지를 성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질문 : 당신이 받은 양피지에 정화의 시기에 일어날 10가지 비밀이 다 적혀 있던 말입니까?

미리야나 : 네. 모든 것이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그 양피지는 불에 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그 양피지에 쓰인 글을 읽을 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직 미리야나 당신만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미리야나 :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양피지는 이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에 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 양피지를 본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미리야나 : 그 양피지를 본 사람들이 제게 말하기를 모두 각기 다른 것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질문 : 그 신비한 양피지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미리야나 : 사라예보에 있는 우리 집, 제 침실에 보관하고 있지요.



질문 : 그 양피지를 사리에보에 보관하고 있구요? 그럼 갑자기 이곳에서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미리야나 : 저는 거기에 적혀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비밀을 기억하기 위해 양피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 미리야나, 그렇다면 당신은 그 비밀들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겠군요. 당신은 그 사건들이 일어날 날짜와 요일과 시간까지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미리야나 : 네, 저는 그 일이 일어날 날짜와 요일까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미리야나,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당신을 두렵게 만들어 줍니까? 특히 비밀이 일어날 날짜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으니 (이때 미리야나는 어깨를 추스리며 얼굴을 돌렸다.) 비밀들이 좋은 소식인지 아니면 불길한 것인지 만이라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야나 : 첫 번째 비밀이 이루어질 때 사탄의 세력은 부서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탄이 지금 그토록 극심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미리야나, 첫 번째 비밀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의 한 부분이 완전히 파괴될 것” 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생명이라고는 자라지 못할 것” 이라고 당신이 말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미리야나 : 저는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제발 더 이상 비밀에 관해 알려고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메주고리예에서 복되신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섭리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추라고 말해주세요.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내려주고 계시는 “기도하고, 단식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라” 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산다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질문 : 미리야나, 이 세상이 과연 당신이 알고 있는 비밀이 실현된 후에도 지금처럼 이대로 존재하게 될까요?

미리야나 : 우리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다 지나가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느님의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 외에는 모든 것은 지나가고 허무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뜻하는 것을 잘 이해 할 것입니다.

질문 : 미리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흘간의 암흑과 해일과 지진과 종말적인 파괴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미리야나 : 저는 그런 것들에 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대하여 말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평화이십니다. 메주고리예의 복되신 성모님의 메시지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께 돌아오라는 것이며, 우리들의 어머니로서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M**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Visions of The Children/
어린이들이 본 메주고리예의 성모마리아 에서 발췌 -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

성모님의 발현을 믿지 않았던 요조 신부

1980년 11월 중순 메주고리에 본당 사제로 부임한 요조 신부는 순수하면서도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을 굽히지 않는 분이였다. 예를 들어 공산당에 이부하면서 남의 눈을 피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세례도 혼배성사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공산정부는 요조 신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타 본당으로 전출을 시키고자 갖은 압력과 노력을 다 하던 중 드디어 외지에 있는 메주고리에 본당으로 보냈다. 메주고리에에는 세계대전 이후 40여명이 넘는 사제들과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이 태어난 곳으로 공산정부는 요조 신부가 이런 외지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초월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악도 선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심을 후에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을 통해 알게되었다. 요조 신부는 새로 부임한 본당의 신자들에게 성체를 영하고 미사가 끝나도 예수님과 일치감을 느끼며 묵상과 기도를 하도록 하면서 신자들에게 미사가 신앙 생활의 핵심이 되도록 이끌었다. 신자들은 이런 묵상기도가 예수님의 현존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하고 영육간에 휴식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하였다. 성모님의 발현 사흘째인 6월 27일 요조 신부는 본당 신자를 통해서 발현 소식을 들었지만 공산 경찰의 조작극이라고 믿고 "교회는 발현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오랜 동안 분석하고 신중하게 조사할 것이니 우리는 먼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며 신자들에게 산으로 가지 않도록 종용하였다. 그러나 신자들이 발현을 믿지 않는 본당신부의 말을 듣지 않고 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감실 안에 현존하시는데 무엇을 보겠다고 저러는 것일까? 하고 실망했다. 요조 신부는 성모님을 보았다는 여섯 명의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질문을 하고 녹음도 하였지만 어린 아이들의 진실하고 성숙한 답변에 마음으로 놀랐다. 또한 발현 목격 증인 아이들이 천상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매일 성당에 모여 사도신경과 함께 일곱 번의 주모경을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말에 신자들이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일인지 잘 분별하고자 했다.

아이들을 보호하여라!

발현 열흘째인 7월 3일, 아이들은 자신들을 잡으러 온 공산당원들을 피해 포도밭과 담배 밭 사이로 길을 바꿔가며 성당을 향하여 도망치고 있었다. 그 시간 홀로 성당에 남아 성서를 읽던 요조 신부는 자신이 신자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외 많은 이에게 말씀하신 주님, 당신은 저를 압니다. 지금 이곳에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본당의 사제로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도와 주십시오.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일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진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빠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하고 강한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다. "나가서 아이들을 보호하여라!" 거역할 수 없는 이 음성을 듣고 기계처럼 벌떡 일어난 요조 신부는 밖으로 뛰어 나가다 성당 문 앞에서 공산당원들을 피해 울면서 뛰어 온 아이들과 마주쳤다. "신부님, 신

부님, 군인들이 저희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요조 신부는 사제관의 빈 방에 아이들을 숨기고 밖에서 문을 잠근 뒤 성당 광장으로 나왔다. 그 때 젊은 경찰이 아이들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요조 신부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이상하게도 경찰들은 비야코치비쪽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사제관으로 돌아온 요조 신부는 녹음된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처음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영적 의미를 느끼고 그 많은 박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아이들의 얼굴을 생각했다. 그 날 성당 안은 사람들로 꽉 들어찬 나머지 손을 드는 것조차 힘들었다. 신자들은 그 날 미사를

드리는 요조 신부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강론하는 모습은 처음이어서 마치 예수님 같았다고 까지 말하였다. 7월 4일 국경일로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정부는 메주고리에 마을 주민들이 사형선고도 받을 수 있는, 혁명을 도모하는 반사회주의자들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다. 그들은 신자들이 성당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자동차는 성당에서 2-3킬로 되는 곳에 주차하도록 명령했지만 신자들은 기도하면서 성당을 갔다. 한편, 메주고리에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소식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유럽 전 지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메주고리로 몰려왔다.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자 하는 순례자들로 메주고리와 발현 언덕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요조 신부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7월 중순 어느 날 저녁 성모님께서 발현 증인 야콥의



집에 발현하셔서 본당신자들이 모두 함께 성당에 모여서 로사리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때 야콥은 가택연금 중이어서 집 앞에서 지키고 있는 경찰 때문에 도저히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야콥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 할 수 있도록 성당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집을 지키고 있던 경찰이 졸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야콥은 창문을 넘어서 성당으로 뛰어갔다. 아무도 모르게 성당 제대 밑에 숨어 있던 야콥은 미사가 끝나자 요조 신부의 제의를 살짝 잡아당겨 할 이야기가 있다는 표시를 하였다. 요조 신부는 키가 작고 어린 야콥을 제대 위로 올려 놓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야콥은 '성

당에 모여서 함께 묵주기도를 하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갑자기 성당 안은 큰 침묵에 휩싸였고,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였다. 어디서부터인가 묵주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직 성모 발현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던 요조 신부도 묵주를 꺼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묵주기도를 하던 요조신부가 갑자기 말을 중단한 채 성당 안의 세 번째 줄 의자 위 쪽을 쳐다보며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요조 신부의 얼굴은 탈혼 상태였다. 몇 분 후, 요조 신부는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 라는 성가를 부르며 환희와 기쁨에 찬한 모습으로 돌아와 묵주 기도를 마쳤다. 요조 신부는 성모님께서 함께 묵주기도를 드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발현 목격 증인 아이들은 "묵주기도를 드리기에 먼저 이웃을 용서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여야라." 하시는 성모님의 말씀을 본당 신자들에게 전하였다. 용서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눈물을 머금

고 서로 포용하게 하였다. 서로 말 한마디도 주고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 따뜻하게 악수를 나누며, 집에서나 밖에서나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다. 그때부터 요조 신부는 발현 목격 증인 아이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진정한 보호자가 되었으며, 성모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직접 전할 수 있도록 발현 목격 증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격려해 주었다.

공산당원들에게 박해받는 요조 신부

메주고리에 마을에는 벨그라도 본 정부로부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에 퍼져나가고 있는 반정부적인 '고스파(성모님)'를 없애버리고, 주민들을 향해 총을 쏘아도 된다는 지령을 받은 사라예보에서 훈련된 특별군대가 파병되었다. 주민들 아니, 마을 전체가 군인들에 의해 포위되어서 마을 어디를 가든지 군인들로 가득하였다. 어느 날 아침 미사 시간에 요조 조브코 신부를 찾아온 안기부 사복 요원들은 요조 신부에게 수도복을 벗긴 뒤 수갑을 채웠다. 요조 신부의 창백한 얼굴에는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굳은 의지가 있었으며 신자들에게 당부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특수요원들은 요조 신부에게 마리아의 발현은 발현 목격 증인 아이들이 환각상태에 빠져서 조작된 것이라고 증언하도록 위협하면서 요조 신부에 의해 시작된 저녁 미사를 없앨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설사 목숨은 내놓을 수 있어도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를 위증할 수는 없었던 요조 신부는 그때부터 혹독한 고문을 받아야 했다. 그때 치아까지 뺏히며 받은 고문의 흉터가 온몸에 있으며 지금도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 당시 요조 신부가 갇혀있는 모스타르 교도소의 간수에 의하면 요조 신부가 갇혀있는 독방을 잠근 열쇠가, 그 다음날 아침이면 열려있든지 한밤중에도 전깃불 하나 없는 독방에서 찬란한 빛이 흘러 나오곤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한다. 성모님께서 당신 때문에 고통을 받는 요조 신부에게 찾아오시어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셨음을 쉽게 예상 할 수 있는 증언이었다. 공산정부는 이런 일들을 상부에 보고하면 교도관들이 광신자가 되었다고 그들을 감방에 가두고 계급이 높은 두 명의 군인이 교대로 보초를 서게 하였지만 그들도 똑 같은 일들을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그 당시 교도관들은 회개하고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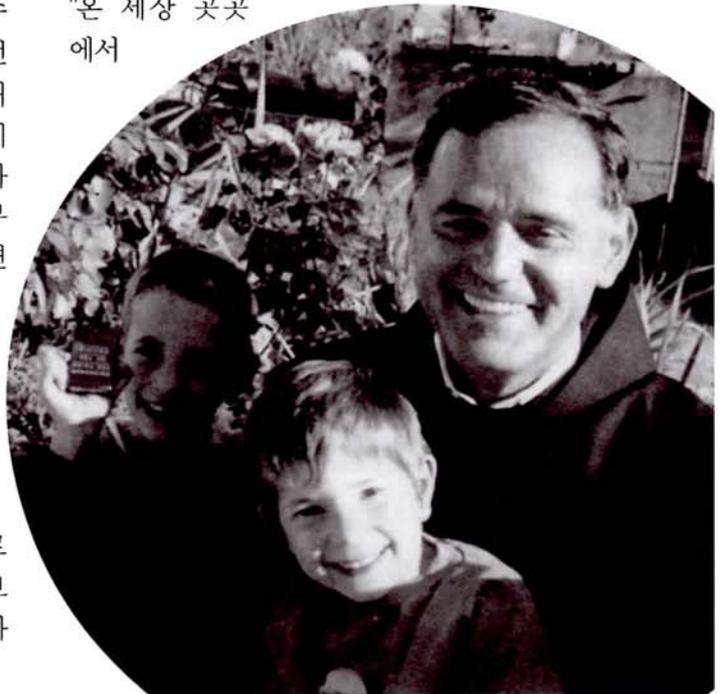
어느 날 요조 신부가 고문을 받아 영망이 된 몸을 지탱하지도 못하고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질질 끌려서 모스타르 병원에 들어오고 있었다. 요조 신부의 입은 고문으로 이빨들이 모두 빠진 상태였고 잔인하게 폭력을 가했는지 오른쪽 뺨은 맞아서 퐁퐁 부어 있었다. 요조 신부는 3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유고슬라비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보스니아의 포차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80명이 수감된 방에는 3개의 화장실과 한 개의 샤워장이 있을 뿐이었다. 난방도 되지 않았고 추위를 견딜만한 담요도 주지 않았다. 수감자들은 음식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아에 허덕이며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었으며 요조 신부는 고문 받은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다.

1983년 2월 중순경, 드디어 요조 조브코 신부는 석방이 되었고 메주고리에에서 가까운 티할리나의 본당 신부로 임명이 되어 신자들과 지낼 수 있었다. 요조 조브코 신부는 감옥에서 배운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설교를 했다.

온 세상에 곳곳에서 어머니여 자녀들이...

시인이며 작가인 스탄코 바실리 신부는 공산정부에서 자신이 당했던 투옥생활을 생각하면서 많은 어려움 중에 투옥되어 있는 요조 신부를 위로하고자 메주고리에 성모성가를 작사 작곡했다.

"온 세상 곳곳에서
어서



어머니여 자녀들이... 굽어보시어 위로와 사랑의 손 펼치시어..." 구구절절이 주민들과 순례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 성가는 미사 때 마다 입당성가로 불리우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주민들과 순례자들은 나라를 초월하여 이 성가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자신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한다. 순례자들은 메주고리예를 떠날 때 이 성가를 가슴과 마음속 깊이 담고 돌아갔으며 지금은 메주고리예를 대표하는 성가로서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불리워지고 있다. 순례자들은 이 곡을 들으면서 메주고리예를 그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변화된 자신들의 삶으로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친필 강복장을 받은 요조신부

1991년 6월 25일 성모님 발현 10주년이 되던 날, 무장한 유고슬라비아 군인들이 슬로베니아의 수도인 류빌라나에 폭격을 가하며 전쟁이 시작되었다. 프란치스코회 수도원 근처에도 폭탄이 투하되어 몇 사람이 중상을 입었으며 요조 신부의 조카는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다. 순례자들은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도 순례를 멈추지 않았다. 순례자들은 왜 이런 전쟁이 하필 이런 곳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물었을 때 요조 신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회개와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무신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파티마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의식을 지닌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성심께서, 승리의 시작을 여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모님의 활동을 통해 평화의 오아시스를 만드셨습니다. 전쟁은 확산되는 악의 오아시스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요조 조브코 신부는 교황 요한 바오로2세를 만났을 때 메주고리예를 방문해주시기를 청했다. 그때 교황께서는 요조 신부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메주고리예, 알고 말구요! 메주고리예를 지켜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신부님께 축복을 드립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고통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나라 신자들에게 저

의 인사를 대신 전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요조 신부에게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쓴 개인적인 감사의 서한과 그분의 사도적 활동에 축복을 보내는 강복장을 보내셨다. 요조 조브코 신부는 헤르체고비나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으로서 메주고리예 발현의 증거자가 되면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제의 한 사람이 되었다. "데일리 가톨릭"지의 투표에 따르면, 요조 신부는 스몰 아홉명의 "금세기의 가톨릭교도의 지도자" 중의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5400명 고아들의 아버지

요조 신부는 그 때 전쟁으로 부모와 형제들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수 없이 많은 전쟁 고아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는 전쟁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마을 조차도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조 신부는 돌보는 이 없이 길거리에 버려져 방황하는 전쟁고아들을 보면서 장차 이 아이들이 악에게 지배당하는 어둠의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긴박함과 함께 지금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14년이 지난 오늘날 그때의 상황을 되돌아 보면 그것은 성모님께서 가톨릭교회의 사제인 요조 신부에게 맡겨주시는 또 하나의 부르심이었고 사명감이었다. 그때부터 오늘 날까지 요조 신부는 전쟁으로 부모와 형제를 잃은 상처로 위로가 필요했던 5400명의 고아들을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기르는 아버지가 되었다. 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요조 신부는 2005년 후원회원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14년 동안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5400명의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응답해주시는 하느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매일의 묵주기도와 철야기도, 미사, 영성체로부터 넘쳐 흐르는 축복을 모두 후원 여러분을 위해 봉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체성사 때 주님의 면전에 성작과 성반을 들어 올리며 아이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는 모든 후원 여러분들을 하느님께서 기억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할 때는 영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받고 있으며 우리아이들은 항상 여러분을 통해 우리는 한 가족임을 체험하는 기쁨을 나누며 성장해 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M

성모님,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박 정욱 빠뜨리시오 (인천 신 공항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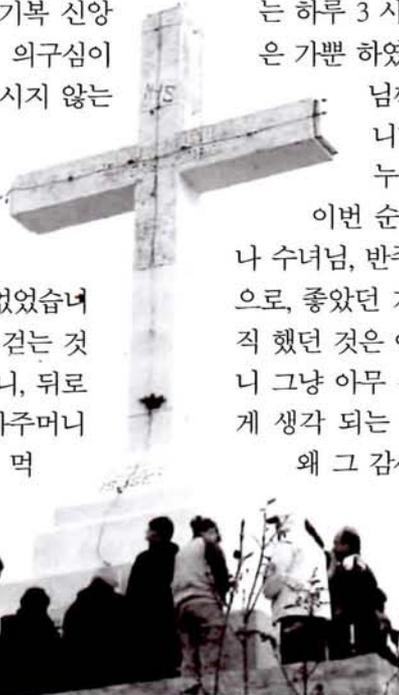
저는 67년생으로 97년에 결혼을 하여, 딸 아들을 두었으며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라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였습니다. 40세 전에 50평 아파트가 삶의 목표이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주일에는 지척에 있는 성당에, 미사 참례하는 것이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인하대 병원의 신경과에서 머리 사진을 찍었는데 뇌 기형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놀라며, 부위가 커서 수술이 힘들다 하더군요. 참 청천 벽력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동안 직업이 오퍼상 이다 보니, 사람을 많이 만나고, 술과 담배를 많이 했는데 언제 갈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니 그렇게 좋던 담배도, 술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군요.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발작 증세가 시작되어서 저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고,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주님을 찾았고 살기 위해서 무조건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기복 신앙이 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성경 말씀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혹시 또 발작증세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차를 타면, 발작 현상이 나타나서 4년 동안 기차, 자동차, 비행기 아무것도 탈수가 없었고 사람이 많은 곳도 갈수가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한일은 아파트 주변을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곳을 가도 그 아주머니, 뒤로 돌아가도 어제 본 그 아주머니... 아파트 아주머니들이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약을 먹었으나 밤에도 이따금씩 발작을 하여 숨이 넘어가는 고통과 두려움에 시

달렸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제 아내와 부모님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함께 하던 레지나 자매님이 저보고 메우고리예를 가라고 하는데 처음엔 마음에 와 닿는 의미가 없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 또 가라고 했습니다. 이젠 제 아내까지 합류를 권하니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일체 피로하면 안된다 해서 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성모님께서 저를 부른다고 해서 한명수 회장님께 전화를 하였더니, "성모님께서 병자가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순례 가는 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했지만, 수백 번 해도 안 되는 것이 마음먹기입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 도착 하여, 한 회장님의 인솔 하에 묵주 기도 15단을 바치고 바로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걱정도 미련도 가족도,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맨발로 돌산에 오르며, 모든 시간을 기도하며 지냈고 본당에서 드리는 하루 3 시간의 매일 미사 참례, 바쁜 순례에도, 몸은 기쁜 하였습니다. 오죽 하면, 왜 그런지 요조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십자가산을 맨발로 올랐지만, 누구 한 명 찢어지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순례는, 참으로 훌륭하신, 방 신부님, 수산나 수녀님, 반주자, 그 외 봉사자 분들과 함께 하는 참으로, 좋았던 기회였습니다. 저는 감사드릴뿐, 제가 오직 했던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더군요. 지금, 제 자신이 밋게 생각 되는 건, 왜 감사 하는 마음이 요 모양인지... 왜 그 감사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사합니다. M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묵주기도를 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도 너희들을 기도예로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기도는 기적을 행한다. 너희들이 지치고 병들어 있을 때나 너희들의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묵주기도를 하여라. 너희들의 구원자와의 기쁜 만남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어린 자녀들아.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2001년 4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과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 자녀들의 반항과 고집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이 불순명하고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새로움이라면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천으로, 이러한 말씀이 흘러나오는 모성의 마음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표징에 멈추지 말고 그 표징이 제시해 주는 길로 나서도록 합시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걸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걸음마를 시작하지 않은 이들, 먼 나들이 길에 지쳐버린 이들, 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잠시 멈추라고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적은 다름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들 밖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 밖이나, 우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것이 아니듯이, 기적은 바로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혹은 우리들 외부에 있는 많은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미래와 가정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길을 잃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 등에 묶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여쭙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리를 세상일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첫 자리에 계실 때,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 어떤 것도 기쁘지 않고 기뻐할 수도 없을 때 등, 이러한 신호들

은 우리들의 영혼이 하느님께 굽주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머니 마리아께서 기쁨과 평화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기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너희들의 구원자와의 기쁜 만남'을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 이라고 어머니께서 이 달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봉헌하면서 기도의 결심을 하게 될 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면서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소유했던 것들, 만들고 건설하며 사라 왔던 것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저쪽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위해 미사와 기도, 고해성사 등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준비하는 삶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결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회개는 결코 무의미한 싸구려가 아닙니다. 나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 어머니 마리아여!
청하오니 너희를 기다리기에
지쳤다고 하지 말아주소서! M





성모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고통

익명의 순례자

Medugorje를 다녀와서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은 온통 그 곳에 가 있는, 뭔가 벅찬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Medugorje에서의 체험은 이제껏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곳 아닌 그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 곳에 갔을 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손에 묵주를 들고 있었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지금 그 곳을 생각하면 저는 이 넓은 우주 안에 오직 예수님과 나 단 둘만 있었던 듯 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분과 진한 밀회를 하고 온 듯한 그런 기분이예요. 그래요. 성모님은 역시 그런 분이셨어요. 살아 생전 아들 예수를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Medugorje에서도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 성심께로 데려 가시고 온전히 일치 시키신 후, 당신은 작은 모습으로 조용히 그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첫 날 새벽에 맨발로 십자가산을 오르면서 1처를 지날 때, 오직 한 가지 생각 만으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느님의 외아들인 그 분이 인간인 우리에게 당하신 그 수모와 능욕이야 그렇다 해도 인간적 고통으로 치면 예수님은 단 사흘간만 수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고통이 훨씬 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단 사흘이지만 1처에서 사형선고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던 나의 엄청난 잘못이 갑자기 깨달아 지면서, 단 사흘이 아니라 이 천 년이 넘는 나날들을, 오천 대의 매가 아니라 수천 수십억 대의 매질들, 한 가시관이 아니라 수억 수백억 개의 가시에 찔리셨고 지금도 찔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이 가슴 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순교자의 고통과 비교했는지, 2처부터 14처까지의 그림을 보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아픈 성심을 모른 채 한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빌고 또 빌면서 올라갔습니다. 마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믿을 수가 없

었어요. 둥근 해의 가운데서 끝없이 성체 모양의 또 다른 둥근 형상이 뿔어 나오고 아래로 길게 이어진 빛의 길이 내가 있는 곳까지 뻗어 오더니 마지막에는 해 둘레에 아주 또렷한 하트 모양이 오랫동안 떠 있었습니다. 내려 오면서는 예수 성심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하나 돌을 밟았습니다. 때로는 쟁한 햇살에 온 몸을 맡기며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다 태워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별이 쏟아져 내리는 자정의 발현산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침묵과 함께 하기도 했으며 초승달을 둘러싼 아름다운 달무리는 분명 하늘의 손짓이었습니다. 청십자가 앞에 가서 앉았다가 저녁 들녁을 걸어 숙소로 돌아 올 때는 하느님이 그 동안의 나의 순례를 마무리해 주시는 듯, Medugorje에서 마지막 날 또 다른 모습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해돋이 때 봤던 것보다 더 많은 성체들이 해가 쫓겨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끝도 없이, 끝도 없이 해에게서 쏟아져 나오고, 나온 것은 초록 색으로 하늘에 떠 있다가 성모님의 형상으로 변하면서 바로 제 앞까지 왔다가 사라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착시현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비웃는다면 저도 그냥 웃고 말겠지만, 그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제게는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Medugorje에 가서 성모님 뵈었다고 물으면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뵈었다고. 10박 11일의 일정 가운데 로마에 들러 교황님을 직접 뵈기도 했고 수십 명의 주교단이 드리는 미사에 참여하여 성체를 모시기도 했지만 그런 기억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만이라도 더 그런 만남을 갖고 싶은 열망만이 제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앎과 삶이 일치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니 말 못하고 입다물 수 밖에는요. **M**

미주 가톨릭 신문 구독 요청서

이종하 신부
 (미주 가톨릭신문사 사장 /
 파티마 세계 사도직(푸른군대) 지도신부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찬미 예수. 마리아. 요셉!

저는 미주 가톨릭 신문사의 지도신부 이종하 신부입니다.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원님들에게 가톨릭 신문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웃에게 구독을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사제로서의 삶을 성모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라며, 제가 맡고 있는 모든 직책은 성모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맡기신 것이라고 믿고 봉헌했습니다. 제가 미주 가톨릭 신문사에 부임했을 때에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성모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라며 즉시 신문사를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봉헌하였으며, 또한 매일 기도 중에 이 지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들보이신 김수환 추기경님도 가톨릭 신문사 사장직을 수행하셨던 가톨릭 신문이 2007년이던 창간 80주년을 맞게 됩니다. 가톨릭 신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한국에서 최초로 창간되어 지난 시간 동

안 한국 가톨릭교회를 보호하고 대변해온 교회의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풍부한 영적 양식을 제공하여 왔으며, 늘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발행해 온 한국 가톨릭교회의 신문이기에, 자녀들과 이웃에게 안심하고 권유할 수 있는 교회의 신문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 대부모 및 대 자녀들이나 선교대상자들에게 가톨릭 신문을 선물로 구독신청해주시면, 일년에 50회에 걸쳐서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미, 러시아, 중국 등의 오지에서 외로이 선교하시는 신부님 수녀님들에게도 한 부씩 선물로 보내주시면, 마치 고향사람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소식지에 첨부된 구독신청서를 이용하시어 수표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회원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성모 엄마의 티 없으신 성심의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M

미주 가톨릭 신문 구독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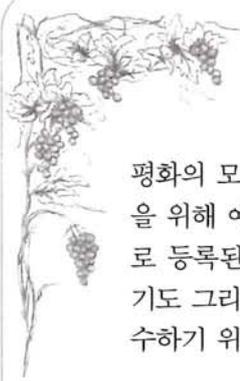
받으실 주소: _____

CITY STATE ZIP

신청인: _____ 소속 본당: _____

서명: _____ 년 월 일

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연 구독료 \$100과 함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Payable to **The Catholic Times** 1502 Crenshaw Bd, Las Angeles, CA 90019
 ☎323-735-0505 / Fax 323- 735-2496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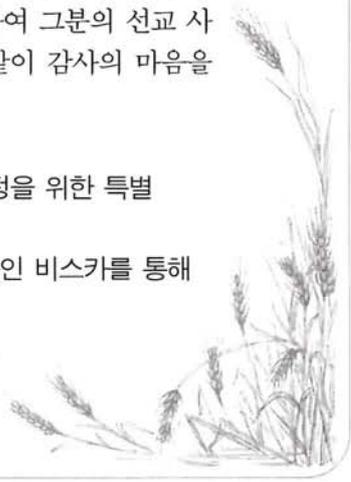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보내드립니다.
-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 610-965-6168 Fax : 610-965-617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분당: _____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월() 년() 기타() 금액() 회원번호()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미령, 강신일, 강진희, 강찬구, 곽승연, 길윤옥, 김갑식, 김금성, 감마리아, 김명주, 김분도, 김수자, 김숙영, 김시순, 김율리아나, 김정아, 김태자, 김창성, 김천, 김효정, 김혜숙, 남상유, 남마리아 (콜롬비아 공동체), 노영란, 노순옥, 노순재, 노안나, 민현희, 민장숙, 박대식, 박순미, 박승화, 박영희, 박창희, 방순중, 박혜선, 박혜정, 백안셀모, 손마리아, 손헬레나, 송정순, 송테레사, 서명선, 서순희, 서천원, 석선옥, 선우선아, 신순덕, 신젼마, 신현아, 심무길, 심재석, 안광숙, 안소영, 엄봉화, 여애경, 오미정, 유바올라, 유태홍, 유혜순, 이경, 이계숙, 이마리아, 이메리, 이명희, 이송광, 이순자, 이윤정, 이인영, 이은경, 이태우, 이지연, 이호영, 이해영, 이해숙, 장요안나, 장혜정, 전문석, 전수산나, 전연희, 전윤옥, 정광선, 정금순, 조병주, 조안나, 조용옥, 조은숙, 조은자, 지복원, 지현남, 최동원, 최루시아, 최지현, 최해근, 허주리, 허민, 홍경복, 홍정수, 홍지연, 황정애, 황혜정
Baker, Ok Son, Cho Eileen Kim, Johns, Robert P, Muzzanghee, Inc,
Kim, Madera Schunlyer, Roger S, Spence, Myong S, Ziegmann, Mattew, 익명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에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소식지 제 33호도 회원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판과 사이판을 포함한 미주 전 지역, 캐나다, 한국, 이태리, 런던, 스위스, 독일에 무료로 보급하였습니다.

* 선교회는 "나는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려려고 왔다."라고 말씀 하신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33호 후원금	\$ 7,755
지출 (33호 소식지)	
소식지 인쇄, 발송 및 후원회원봉투 인쇄	\$ 7,250.00
통신비	\$ 470.00
교통비	\$ 890.00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 710.00
● 지출 합계	\$ 9,556.00
● 33호 부족금	- \$1,6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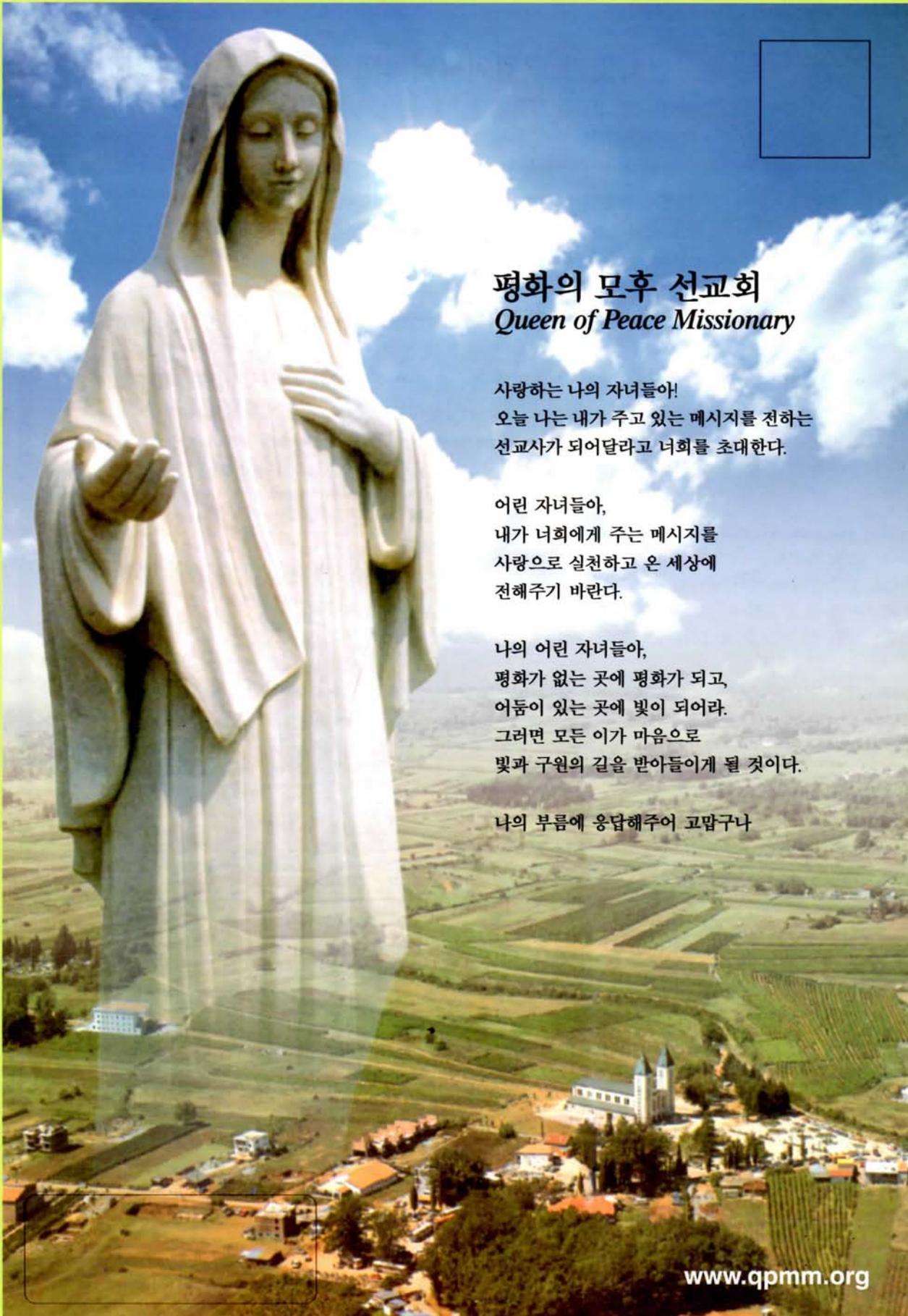


우리 가정에 복음정신을 심어주소서.

오, 거룩하신 마리아 평화의 모후여!
평화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오신 어머니이시여!
모든 가족들과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당신께 청하오니 우리 가정에 복음정신을 심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소서. 생활 속에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소서.
오! 어머니이신 마리아, 평화의 모후이시여!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이웃을 향해 행동하게 하소서.



리뷰보 신부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www.qpmm.org

USA

남 그레고리오 (Gregory Nam)

1565 Brookside Rd., Macungie, PA 18062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E-mail : gregorynam@hotmail.com

KOREA

최성득 그레고리오

서울시 전동구 옥수 1동 515-1 B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 soulbassmaster@hotmail.com

CANADA

이준용 클레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